

“자유의 집”보고: 중공은 대규모로 파룬궁수련생의 생체를 강제 적출했다

[밍후이왕] 2017 년 2 월 28 일, 미국의 유명한 싱크 탱크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중국의 정신 전쟁’이란 최신 보고를 발표했다. 이 보고는 중국의 종교자유의 현황, 각 종교단체가 받은 교란과 박해 정도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했다.

그중 파룬궁에 대해 22 페이지로 된 지면으로 파룬궁이 90 년대에 중국대륙에서 전해진 상황과 당시 정부가 준 지지, 박해가 발생한 원인, 박해 범위와 심각한 정도, 파룬궁수련생의 반박해와 진상을 알린 여러 가지 노력이 중국사회에 대한 영향, 현재의 추세 등에 대해 상세히 묘사했다. 이는 국제 유명한 인권단체에서 발표한 파룬궁에 관한 분석과 연구 중에서 가장 상세하고, 가장 전면적이며, 가장 심도가 깊은 보고중의 하나이다.

‘프리덤 하우스’는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운동은 이미 17 년이나 지속되고 있지만 심지어 수백만, 수천만 사람이 여전히 계속 파룬궁을 수련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박해 이후에도 부단히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중공이 파룬궁 박해에서 실패 했음을 대 표한다.”라고 표시했다.

2013 년 1 월부터 2016 년 6 월 1 일까지, ‘프리덤 하우스’는 대륙에서 933 건의 파룬궁수련생이 판결 받은 안건을 독립적으로 확인 했는데 형기가 12 년이 되는 것도 있었다. 보고는 지적하기를 이에 앞서 수십만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감옥 혹은 노동교양소에 감금 되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는 또 중공은 매년 수억 달러를 투입해 파룬궁을 박해했는데 그 중 이를 위해 설립된 ‘610’판공실의 매년 예산이 8.79 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것은 1.35 억 달



■ ‘프리덤 하우스’가 2017 년 2 월 28 일에 발표한 ‘중국의 정신 전쟁’이란 최신 보고에서 중국의 종교자유의 현황, 각 종교단체가 받은 교란과 박해 정도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했다.

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비록 파룬궁박해 정책이 공식적으로 개변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대규모적인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어떤 것은 승급하였다. 파룬궁수련생들은 구류, 감금, 고문에 시달리고, 심지어 살해됐다. 하지만 다른 한 면으로 보면 국부지구의 박해는 감소 되었고 적극적으로 박해에 참여한 중공관원, 예를 들면 저우융강, 보시라이 등은 감금되었다. 파룬궁수련생의 진상 알리는 활동으로 인해 많은 지역의 관원과 경찰은 더는 박해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보고는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민감한 고발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연구했다. “믿을 수 있는 증거에서 나타난 바로는 금 세기 초부터 파룬궁수련생들은 대규모로 장기를 적출 당하고 살해됐다. 아울러 이런 장기 남용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표명했다. 그들은 ‘장기강제적출 조사자가 수집한 증거(중국 의사에게 한 전화를 포함함)에 대해 평가했고, 수감 당했던 파룬궁 양심범을 취재했는데 그들은 감금기간 혈액검사를 받았으며, 한 타이완 의사와 교담했는데 이 의사의 환자가 중국에 가서 장기 이식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한 중국 군의 병원 일군의 친구와 교담했는데 그는 (병원당국)이 2011 년에 한 파룬궁수련생 양심범 몸에서 장기를 적출한 직접적인 정보를 주고 있었다.’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는 또 데이비드 킬고어, 이단 구트만(Ethan Gutmann)과 데이비드 메이터스 등 3 명의 독립조사원이 작년 6 월에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발표한 수사 보고를 인용했다. 중공이 매년 진행하는 실지 장기이식 수량은 공식 발표한 매년 1 만 건의 몇 배나 된다. 이는 이식수량과 이미알고 있는 장기공급원의 (뒷면에 계속)

최근 검찰에서 안건을 철회하고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한 사례

(앞면의계속) 차이가 더욱 커서 파룬궁수련생과 기타 양심범의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 할 위험성을 더욱 크게 했다.

‘프리덤 하우스’보고 작가 Sarah Cook 여사는 28 일의 보고 발표회의에서 매체 취재를 받을 때 “중공의 모든 범인에게서 장기를 강제적출하는 것을 제지하고, 중공의 장기내원, 기부 시스템 및 이식 시스템에 대해 국제 독립 심사를 진행하여 장기 기부가 완전히 자원이고 투철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보증할 것”을 호소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프리덤 하우스’는 민주, 자유, 인권 연구와 보급방면에서 가장 주요한 싱크탱크중의 하나이다. 매년 발표하는 보고는 상당한 권위를 갖는다. ‘프리덤 하우스’는 1941 년에 성립되었는데 루스벨트총통의 부인도 창시인중 한 사람이다. ◇

[밍후이왕]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2017년 2월 이래, 라오닝, 허베이, 안후이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연 7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모함 받은 안건을 검찰이 철회했다.

17년 동안, 중공 장쩌민 집단의 도구로 전락했던 공검법(公檢法) 직원이 감히 스스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가슴에 이미 충족한 정의의 역량을 쌓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성공적으로 중공의 압제를 돌파하고, 자신의 한 일환에서 최소한 올바른 결단을 기록한 것이다.

허베이 파룬궁수련생 주창잉 무죄 석방

허베이 형수이 지저우시의 파룬궁수련생 주창잉(酒长迎)이 2016년 10월 20일 ‘천멸중공’이란 현수막을 걸다가 악인에게 고발당해 납치, 가택수색을 당한 후 지저우시 구치소에 불법 수감 되었다. 2017년 1월 17일, 지저우구 법원은 주창잉에게 불법재판을 했다. 재판 중 베이징 변호사 리송빙(黎雄兵), 동첸웅(董前勇)은 모두 주창잉에게 무죄 변호를 했다.

2월 4일, 가족이 법원에 가서 보니 재판 결과가 이미 나와 있었다. 주심 판사는 변호사와 가족의 의견은 수락되지 않았다고 했고, 가족은 주창잉이 한 일체는 모두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변호사가 한 무죄변호 의견은 이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주심 판사 류리쌍(刘丽爽)에게 알려 주었다. 오늘 한 이 일체 박해는 모두 장차 범죄증명으로 될 것이다. 뜻밖에도 2017년 2월 10일, 지저우구 검찰은 소송을 취하하고 주창잉은 무죄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옛새 전에 주심 판사는 여전히 “변호사와 가족의 의견을 수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6일 후 놀랍게도 완전히 상반되는 처리 결과를 했으니 파룬궁수련생의 진상 알리기, 변호사의 무죄 변호 및 경고는 검찰, 판사의 사상

가운데서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그들에게 정기가 솟아나게 했고 나중에는 정확한 판결을 내리게 됐다.

라오닝 파룬궁수련생 린유엔, 리스멘 석방

라오닝 테링현 추이전바오진 샤오통촌의 선량한 여사 리스멘(李士棉), 린유엔(林永艳)이 2016년 11월 2일, 마을 사람들에게 새해 달력을 무료 배포하던 중 납치됐다.. 법정에서 린유엔, 리스멘 가족이 선임한 산둥 변호사 쑨덴진(孙典军)과 텐진 변호사 마웨이(马卫)는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 인내심 있게 도덕적 양지로부터 헌법, 법률, 법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한 편, 린유엔, 리스멘 가족이 법원에 가서 친인이 파룬궁을 수련하여 수익을 보았고, 파룬따파는 사람에게 선을 향하도록 가르친다는 상황을 서술했다. 판사는 진지하게 들었고 태도가 상냥했으며, 반드시 사법을 공정하게, 법률에, 자신에, 그리고 당사자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족에게 즉시 ‘청구서’를 쓸 것을 건의했다. 테링현 법원은 연구를 거쳐 법에 따라 그녀들을 모함한 이른바 ‘안건’을 테링현 검찰에 되돌려 보냈고,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라오닝 단둥의 파룬궁수련생 런핑(任平), 지리쥘(纪丽君)은 파룬궁진상을 알려 주다가 납치당했다. 2월 4일, 검찰은 또 런핑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철회했고 런핑, 지리쥘안은 석방되었다.

안후이 허페이 파룬궁수련생 우징칭(伍静青)의 안건도 검찰에서 증거 부족으로 여러 번 서류를 되돌려 보내 결국 우징칭은 2월 21일에 집에 돌아왔다.

2월 28일, 안후이 허페이 파룬궁수련생 황위칭 사건도 이미 철회 ◇

15년 전 텔레비전 삽입 방송은 민중의 알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쾌거였다

15년 전인 3월 5일 저녁 8시 길림성 창춘시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파룬궁 진상 텔레비전 삽입방송 사건이 발생했다. 길림성 파룬궁수련생들은 장쩌민 집단이 조작한 ‘천안문 분신자살’ 등 거짓을 폭로하기 위하여 창춘(长春)과 송위안(松原)의 유선텔레비전 8개 채널에서 동시에

파룬궁 진상 ‘분신자살인가 아니면 숙임수인가’, ‘파룬따파 세계에 홍전’을 4~50분 동안 삽입방송하여 십만 관중으로 하여금 파룬궁이 중공의 중상모략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진상을 알게 해 중국대륙 및 해외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장쩌민은 크

게 공포를 느끼고 방송에 참여한 수련생을 “사살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명령을 비밀리에 내렸다. 진상방송이 시작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현지의 군대, 경찰과 정부관리가 총동원되어 미친 듯이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기 시작했다. 5천여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뒷면에 계속)

(앞면의 계속) 으로 체포되어 감옥, 강제수용소에서 비밀리에 혹형 박해를 받았다. 이번 체포에서 적어도 6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잔인한 혹형으로 사망했다. 신원이 밝혀진 수련생은 리수친(李淑芹), 리룽(李容), 허우밍카이(侯明凱), 류이(劉義) 등이다. 15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4~20 년의 불법 형을 받았다.

파룬궁 수련생 류하이보(劉海波)는 경찰에게 몽둥이로 맞다가 몽둥이가 부러졌다. 경찰은 전기 곤봉을 그의 항문에 밀어 넣어 내장을 충격하여 극도의 고통 속에서 죽게 했다. 파룬궁 수련생 류청전(劉成軍)

은 경찰이 총으로 다리를 쏘아 불구가 되었고 혹형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후 지린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는 사지 늘이기, 잔인한 폭행,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 등을 당해 고통스럽게 사망했다. 파룬궁 수련생 레이밍(雷明)은 장춘시 공안국, 지린 감옥 등에서 호랑이 의자 형벌, 등뒤로 수갑을 채우고 혹독하게 때리기, 전기 충격하기, 비닐 주머니로 머리 씌우기, 철통 썩은 후 때리기, 전기로 항문 충격하기, 사지 넓히기, 널빤지 앉히기, 고환 비틀기 등의 인성이 없는 고문을 당한 후 폐에 결핵 천공이 생겨 폐가 십분의 2 밖에 남지 않았다.

근육은 위축되었고 체중은 급격히 줄었다. 생활도 자립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생명이 위중할 때 보석으로 석방되어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3·05’ 창춘 텔레비전 삽입방송 15 주년이 다가올 즈음 우리는 전력을 다해 파룬궁 박해를 지지한 중공 고관들이 잇달아 응보 받아 감옥에 감금 되고 박해 원흉 장쩌민은 이미 전 세계 정의 인사들에 의해 법정에 고발당했고 파룬궁 박해로 조성한 무수한 죄업을 갚을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다. ◇

대만 퇴직교사 파룬궁을 수련하여 암이 완치되다

[밍후이왕] 대만 운림에 거주하고 있는 영어선생인 정진렌(鄭金蓮)은 10 년 전에 연고 없이 장기간 기침을 하는 바람에 강의에 영향주어 중의 양의를 여러 차례 보였지만 그래도 병 근원을 찾지 못하자 의사는 과민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자신의 병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까 두려워 정진렌은 부득불 4 년 앞당겨 퇴직했다.

퇴직 후 정진렌은 한가한 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하늘엔 알지 못할 풍운이 돌았다. 다시 한 번 정기 건강 검진 후 유방암을 발견했다. .

그때 그는 당황한 나머지 도처에서 민간요법을 찾았고 약 한달 후 다시 병원에 가서 재진 한 결과 이미 종양2기였다. 정진렌은 의사의 건의에 따라 첫 번째 화학약물 치료를 받았다.

정진렌은 약물 치료를 받을 때 그녀의 신체는 아주 허약해졌고 특별히 고통스러웠는데 살기가 죽기보다 못했다고 했다. 억지로 제6차 화학약물 치료를 받을 때 의사는 그녀의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 더는 화학약물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더하면 생명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리하여 그녀는 화학약물 치료를 정지했다.

이때 정진렌은 갑자기 한 학생 가장이 늘 그녀한테 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데 기이한 효과가 있는 파룬궁을 소개하던 생각이 떠올랐다. 또 그녀에게 책 2 권을 주었는데 한 권은 파룬궁 주요저작 ‘전법륜(轉法輪)’이고, 다른 한 권은 ‘파룬따파 대원만법(法輪大法大圓滿)’이다. 정진렌은 집에서 책도 보고 책 중의 동작과 설명에 따라 연공도 했다. 정진렌은 자신의 신체기능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으며, 신체도 예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았다. 정기추적검사 시간이 되어 그녀는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모든 혈액 지표는 모두 정상으로 회복됐다. 의사는 그녀에게 이후엔 정기검사만 받아도 된다고 알려줬다.

파룬궁을 수련한지 얼마 안돼서 정진렌은 공공버스에 올랐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져 오른손이 탈구 골절됐다. 의사는 검사하고 나서 그녀가 암

환자기에 감히 수술하지 못하고 3 각 수건으로 싸매고는 그녀더러 스스로 손이 아물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약 반년은 걸릴 거라고 알려 주었다.

집에 돌아온 후 10 여일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마침 한 친구가 현지에서 파룬궁 9 일반을 한다고 알려주면서 정진렌에게 참가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정진렌의 남편은 연속 9 일간 차를 몰고 그녀를 데리고 참여했다.

“첫날, 사부님의 녹화설법을 보고 돌아왔을 때도 나의 오른손은 조금도 움직일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정진렌은 말했다. “3 일 되는 날, 제3장 공법을 배울 때 나는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보았습니다. 얼마만큼 들 수 있으면 얼마를 들었습니다. 생각밖에 천천히 직선으로 늘일 수 있었습니다. 4 일째 되는 날에는 오른손을 완전히 움직일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의사가 판단한 6 개월 회복기간, 특히 그런 참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이 파룬궁을 배워 3 일 후에 완전히 소실되고 손은 과연 나왔습니다. 진짜 사람으로 하여금 불가사의하게 합니다!”

정진렌은 또 특별히 제기하기를 암증이 사라진 외에도 예전에 자신을 괴롭히고 사업조차 못하게 하던 기침도 저도 모르게 완쾌 됐고 현재까지 4 년 넘게 파룬궁을 수련하여 신체는 가볍고 자유로우며, 비록 매일 4 시간만 잠을 자도 오히려 정력이 충실한데 진짜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만약 친히 겪은 경력이 아니라면 진짜 믿기 어려웠을 거라고 했다. ◇(글/리팡루)



대만 퇴직교원정진렌

지린성 위수시 덩리쥐안 불법으로 3년 형 받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지린 보도) 2017년 1월 24일 (음력 27일) 위수시 파룬궁수련생 덩리쥐안(邓丽娟)은 둔화시 법원에 의해 3년 불법 형을 받았다. 덩리쥐안은 불복하여 당장에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심판할 때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덩리쥐안이 선임한 변호사에게도 통지하지 않았고, 심판 후에야 가족에게 통지했다. 이는 엄중하게 법률절차를 위반했다.

2016년 9월 21일 오전, 둔화시 법원은 엔지 룽징 법원처에서 위수시 파룬궁수련생 덩리쥐안에 대한 불법 재판을 했다. 불법 재판에는 재판장 저우지민, 판사 왕추이링, 공소인 랑얼성 등이 참여했다.

법원은 덩리쥐안이 선임한 변호사의 변호를 허락하지 않았다. 덩리쥐안이 “나의 변호사가 왔습니까?”라고 묻자 왕추이링이 “변호사가 당신을 위해 변호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전에 이 일 때문에 가족은 법관을 찾아 따졌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무엇 때문에 변호하지 못하게 합니까?” 법관은 “이는 ‘610’의 결정이기에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가족이 둔화시 ‘610’ 인원을 찾아가니 그들은 “이는 성의 결정이다. 베이징 변호사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과는 법관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판사가 덩리쥐안에게 계속 연공하겠는가 묻자 덩리쥐안은 “나는 원래 림프 암 환자입니다. 파룬궁을 수련해 완쾌됐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덩리쥐안은 그가 금방 납치됐을 때 둔화순라경찰대대 경찰에게서 받은 고문과정을 서술했다. “그 당시 나를 지지 못하게 했고 호랑이 의자에 앉혀 놓았고, 나의 몸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많은 머리카락이 빠졌고, 새로 자라난 머리카락은 모두 흰 머리카락입니다.”

덩리쥐안은 또 말했다. “그때 나를 구치소에 보내려고 신체검사를 시켰는데 내가 림프 암을 앓은 적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신체 불합격으로 받지 않기로 됐지만 창거라고 부르는 경찰이 그들과 무슨 말을 하자 받았습시다.”

덩리쥐안, 1968년 8월 23일 출생,

위수시 칭산향 3심촌 사람,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몸에 있었던 질병은 20여일 만에 사라지고, 3식구는 따파(大法)의 은혜 속에서 즐겁게 생활했다. 1999년 7월 20일, 중공 장쩌민 깡패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덩리쥐안과 남편 정푸상(郑福祥)은 공정한 말을 한다하여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정푸상은 창춘시 웨이즈거우, 초양거우, 편진노동교양소에서 정신과 신체에 시달림을 받을 대로 다 받고서 2004년 4월 7일에 박해로 사망했다. 그때 덩리쥐안은 박해를 피해 유리표박하고 있었기에 결국 남편한테 마지막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말았다. 13세 밖에 안 되는 아들은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야 살아 나갈 수 있었는데 후에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2015년 8월 4일, 덩리쥐안은 둔화시의 모 구역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던 중 둔화시 순라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왕페이위, 장즈창 등에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 고문핍박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검찰원에 보내 불법으로 체포했다. 검찰원 공소인 랑얼성은 소위 안건을 법원에 떠넘겨 진일보로 박해하려 했다.

가족은 덩리쥐안을 위해 베이징 변호사를 선임했다. 2015년 11월 12일 변호사는 둔화 검찰원과 법원에 가 관련 절차를 밟고 덩리쥐안을 회견했고, 순조롭게 안건 서류를 찾아보았다.

2016년 1월, 법원과 변호사는 재판 시간을 상의하였는데 변호사는 시간이 바빠 뒤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법원에서도 동의했다. 후에 변호사가 법원과 상의할 때 법원에서는 변호사가 본 지방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변호를 허락하지 않았다.

2016년 3월 17일, 가족은 둔화 법원에 가서 이 안건을 책임진 판사 왕추이링을 찾아 정황을 알아보았다. 왕추이링은 자기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가 퇴출하는데 동의했고, 덩리쥐안도 동의했다고 했다. 당시 덩리쥐안의 늙은 아버지가 “우리는 어제 변호사와 연락했었는데 변호사는 퇴출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안 되는가? 우리 선임한 것도 변호사고, 당신들이 안배한 것도 변호사인데 어째서 당신들이 안배한 변호사만 써야하는가?”라고 말했다. 왕추이링

은 나 혼자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는 위의 (지린성 정법위 610)결정이라고 했다.

3월 25일, 가족과 변호사는 또다시 둔화에 와 덩리쥐안을 회견할 때 덩리쥐안은 법원에서 안배한 변호사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과 왕추이링을 찾았는데 왕은 일이 있다면서 만나지 않고, 전화로 변호사에게 ‘610’을 찾으라고 했다. 변호사는 “‘610’은 무슨 조직인가? 나는 그와 아무 관계도 없다. 내가 그것을 찾아 뭘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마지막에 왕추이링은 ‘610’에서 당신을 찾게 하겠다고 말했다.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 당사자를 위해 변호하는가는 법률이 당사자와 가족에게 준 기본권리이다. 하지만 당당한 법관이 법률에 근거해 일하기 두려워하고 법외조직의 지시에 복종하여 법률에 먹칠하고, 중국의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선량한 중생을 박해하는 공구로 전락되게 했다.

지린성 엔베주 둔화시 공검법이 덩리쥐안 안건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끈것은 그들이 정말로 형세를 관망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음을 알아볼 수 있다. 덩리쥐안에게 유죄를 판결하자니 장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책임을 추궁당할까 두려웠고, 무죄석방을 하자니 또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줄곧 끌었는데 마침 사당의 양고(两高)에서 2016년 말 또 불법적인 사법해석을 내놓았기에 겨우 구실을 얻어 덩리쥐안에게 불법적인 3년 형을 선고했다.

덩리쥐안의 안건은 2015년 8월 4일 납치돼서부터 2017년 1월 24일에 불법으로 억울한 3년 형을 선고받기까지 근 18개월 시간이 경과되었다. 원래는 덩리쥐안이 사람을 구하는 선한 행동이었는데 오히려 사당에 의해 이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운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오히려 사당의 비뚤어지고 사악하고 추한 몰골과 사악한 본성을 남김없이 들어냈다.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동시에 공검법사법 공무원과 세인을 박해했다. 정말 죄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서술할 수 없다.